

# 移民 歷史家들

李 敏 鎬

서울대 人文大 西洋史學科

## I

20세기는 두 차례의 大戰을 겪으면서 全體主義가 世界秩序를 그 뿌리까지 흔드는 渦中에서 故鄉을 등진 수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避難地를 찾은 歷史를 경험하는 세기라고 할 수 있다.

「亡命의 歷史」, 「避難의 歷史」를 통해서 20세기 歷史를 서술해야 할 날도 멀지 않은듯하다. 이들 亡命客 내지는 移住民중에는 知識階級이 월등하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들이 原住地에서 누렸던 精神的 遺産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는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1)</sup>

파시즘의 학정을 피해 1930년경부터 구 대륙의 知識人들의 신 대륙으로 亡命 내지는 이주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文化圈에 어떻게 적응하였는가보다는, 그들이 美國文化에 어떤 영향과 공헌을 했는가하는 점에서 새로이 주목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sup>2)</sup>

유럽을 떠나 美國으로 移住한 知識人의 國籍別 分布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독일系 住民이 거의 2/3를 차지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나찌즘의 人種政策을 피해온 유대系 독일 知識人들이었다. 이들 移民 知識人들을 받아 들이고 그들이 자유롭게 活動할 수 있기 위해서는 美國이라는 開放社會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0년대까지 美國社會는 잡다한 人種과 民族을 하나의 文化로 融合시키는 도가니(Melting-pot)라고 생각하는 信念으로 지배되었다.

사실, 美國은 17세기 유럽人이 定住하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구 대륙으로부터의 移民의 물결에 의해 형성되었던 나라이다. 경제적 팽창을 위한 이민 노동력, 이주민으로 생긴 유동적인 社會構造, 階層의 化石化를 막는 社會의 活力性등은 多樣성과 流動性이라는 美國 특유의 文化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믿어졌던 것이다.<sup>3)</sup>

특히 2차대전 전에 진행되었던 知識人移住의 隊列은 美國에 도달하여 自然科學, 社會科

1) 西歐에 있어서 亡命人의 역할을 이룰테면 단테, 그로치우스, 베일(Bayle), 루소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권유한 Peter Gay, "Weimar Culture: The Outsider as Insider," in: *Perspectives in American History*, V.11, 0.68(이하 *Perspectives* 약함) 참조.

2) Neumann, *The Cultural Migration: The European Scholar in America*.

3) O. Handlin (ed.), "Immigration as a factor in American History" (1959).

## 2 美 國 學

學 내지는 人文科學의 영역에서 눈부신 活動을 전개하여 美國인들이 전통적으로 구대륙에 가졌던 文化的 전망을 느끼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文化的 중심무대가 新大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바다가 변하였다>고 할 것이다.<sup>4)</sup>

이 글에서는 二次大戰이 일어나기 전 독일에서 나찌즘이 등장하는 것을 계기로 歷史家들이 어떤 상황에서 亡命 내지는 이주를 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移住地에서 歷史研究를 어떻게 계속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大戰전의 독일 歷史學은 마이네케를 위시한 保守主義 路線을 완강하게 고수함으로써 나찌즘의 집권과 동시에 社會學이나 政治學에서 겪은 「亡命科學(Exilwissenschaft)」의 현상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서 진행된 文化史論爭<sup>5)</sup>에 의한 歷史의 形態變化의 가능성이 霧散되고, 독일 歷史學은 기존 政治秩序와 밀착하여 社會의 活性을 주목하는 學問機能을 수행할 수 없어서 남은 方法에만 의지하여 漂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히틀러가 執權하자 體制를 거부하는 歷史家들은 그 職에서 추방되어 국내에 잔류한 內的 移民(innere Migration)을 강요당한 경우와 海外로 이주한 外的 移住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sup>7)</sup> 이들중 外的 移住를 강요당한 대부분의 歷史家들은 巨匠 마이네케의 門下生들이었는데 그들은 스승보다는 歷史的 現實을 한결 더 탄력성있게 파악하기 위해 바이마르 共和國이라는 知的 風土에 발맞추어 보다 새로운 歷史感覺을 갖춘 세대들이었다. 그들은 연령으로 보아 아직 大學에 자리잡지 못한 少壯 歷史家들로서 나찌즘의 執權과 더불어 美國으로 이주하였고 이곳에서 歷史研究의 새로운 活力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 II

移民 歷史家들의 첫 代表者로서 1次 大戰후에 혜성처럼 나타나 독일의 敗亡에 대한 원인을 독일의 잘못된 歷史的 過程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인 에크하르트 케어(Eckhardt Kehr)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同業組合을 구성한 독일의 保守主義 歷史家들에 의해서 異端 歷史家로 「草原의 이리」로 또한 「진정한 불쉐비스트」로 낙인찍힌 케어는 1933년, 美國 歷史家 베어드의 주선으로 美國으로 건너가 시카고大學에서의 강연을 끝으로 그곳에서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해에 나찌스가 政權을 장악한 歷史的 結果로 보아 그가 生存하였다 하더라도 故國인 독일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들어 에크하르트 케어를 移民 歷史家의 제 1호로 꼽는 것은 그가 추구한 비판적 歷

4) H. S. Hughes, *The Sea Change: The Migration of Social Thought 1930~1965*, 김창희(역), 『지성의 대이동: 1930~1965년의 서구사회사상』(한울총서, 1983) 참조.

5) J. Radkau, *Die Deutsche Emigration in den U.S.A. Ihr Einfluss auf Amerikanische Europa-politik 1933~1945* (Düsseldorf, 1970).

6) 文化史 論爭에 관해서는 줄고 “마이네케의 理念史學” 참조

7) G. Igger, *Deutsche Geschichtswissenschaft* (DTV., 1971) p. 320f.

史研究의 방향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1년, 베를린대학에 제출한 에크하르트 케어의 「軍艦建造와 政黨政策」<sup>8)</sup>이라는 논문은 비스마르크의 統一理念과 랑케史學이라는 聖域을 고수하면서 外交史우위의 政治史에 집착하는 독일 歷史家들의 理念塔에 공격을 퍼붓는 업적이었다. 그의 歷史認識속에는 1次大戰에 의해서 초래된 독일의 敗戰에 대해 강한 르쌍떠망을 느끼고 있던 大多數 國民輿論과는 동떨어져서 戰爭의 敗亡이 독일의 과거와 그속에 가로놓인 「잘못된 決斷」을 가차없이 파헤치도록 추구하는 意識으로 가득차 있었다.<sup>9)</sup>

帝國 國防省의 인쇄되었거나 인쇄되지 않는 史料와 帝國議會의 報告書, 日刊紙, 기타 간행물을 포함하는 資料속에서 케어는 軍艦建造 과정에는 언제나 經濟的 利割關係와 社會的 構成이 안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이 論文을 전후하여 그가 정열적으로 추구한 歷史研究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方法論을 이용하여 歷史現象 밑에 깔려 있는 社會的, 經濟的 要因을 밝혀냄으로써 빈혈에 허덕이는 政統적 外交史 우위의 政治史에 대신해서 「內政의 優位」를 강조하는 社會史의 素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업조합을 이루고 완강한 保守主義 路線을 지키는 歷史家들에 의해서 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異端 歷史家」로, 「진정한 불체비스트」로, 「草原의 이리」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케어는 독일에서 주목받기보다는 오히려 外國, 특히 美國에서 큰 名聲을 얻게 되었다.

1933년, 마로 나찌스가 집권하던 해에 케어는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뉴욕에 도착하여 북 캐롤라이나, 시카고, 오하이오 콜럼버스를 여행하고 시카고대학에서 찰즈 베어드를 만나 그의 세미나에서 「최근의 독일 역사서술」<sup>10)</sup>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끝으로 만성적인 심장 질환으로 워싱턴에서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이보다 먼저 케어의 歷史研究가 독일 국내에서 보다 美國에서 더욱 따뜻한 환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주로 베어드와 그의 독일계 사위인 알프레드 바그츠(Alfred Vagts)에 의해서였다. 1930년은 베어드의 歷史思想이 심대한 변화와 위기상황에 들어선 시기였다.<sup>11)</sup> 특히 1929년에 시작된 大恐慌은 民主主義 制度의 生命力에 대한 確信을 동요시키고 더욱 美國 經濟力의 尙태에 대해 깊은 회의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미 베어드가 20년대에 발표한 글 가운데도 時代狀況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筋路들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것들은 단편적으로 새로운 戰爭의 공포, 大戰에의 美國의 參戰에 대한 懷疑, 파시즘과 共產主義에 대한 不安등으로 나타났다.<sup>12)</sup> 그러나 1930년까지는 베어드는 美國의 尙태를 전망하면서 국

8) E. Kehr, *Schlachtflottenbau und Parteipolitik 1894~1901* (Berlin, 1930).

9) 출처 『現代社會와 歷史理論』(文學과 知性社, 1982).

10) E. Kehr, *Neuere Deutsche Geschichtsforschung*.

11) A. L. Skop. "The Primacy of Domestic Politics: Eckhart Keh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of Charles A. Beard," *History and Theory* (No. 2, 1974), p. 123.

12) B. C. Borning, *The Political and Social Thought of Charles Beard* (1962), pp. 106~113.

#### 4 美 國 學

제적 資本主義의 확대와 새로운 戰爭과 불쉐비즘의 확대를 예방할 것으로 조심스럽기는 하나 낙관적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공황과 세계질서의 새로운 不安에 대응하기 위한 베어드의 논설들은 미국이 內政에 눈을 돌리고 경제적 무질서를 초래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대외전쟁에 개입하도록 한 복잡한 국제적인 財産關係로부터 손을 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었다.<sup>13)</sup> 뉴딜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베어드는 일종의 經濟計劃을 강조하고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번영과 자급자족적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증대된 세출을 강조하여 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상이 곧 그의 대륙주의(Continentalism)로 결정되어 세계로부터의 미국의 孤立主義를 강조하고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을 지향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입의 통제를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대륙주의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을——국제금융업자, 무역가, 共和黨의 帝國主義者, 民主黨의 윌슨주의자——무엇보다도 軍國主義者와 해군제일주의자들로 낙인찍었던 것이다.<sup>14)</sup>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恐慌의 도래는 그나마 베어드가 갖고 있던 安定性에 대한 그의 신념을 송두리채 붕괴시키고 역사인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베어드는 그의 독일계 사위인 바그츠(Vagts)를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의 客觀性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歷史主義의 危機를 내세운 카알 호이쾨(Karl Heussi), 歷史가 단순한 객관적 현실의 反映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테오도르 레쥁(Theodor Lessing), 또한 歷史에 있어서의 倫理의 문제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 마이네케(F. Meinecke)등의 歷史認識에 접촉할 수가 있었다.<sup>15)</sup> 이러한 독일 歷史認識에 대한 베어드의 반응은 그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歷史와 社會思想에 대한 확신이 붕괴되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고 1930년대의 베어드의 歷史著述은 바로 이러한 精神的 醞酵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와 같은 歷史認識의 葛藤속에서 베어드는 바그츠를 통해 입수한 케어의 「軍艦建造」를 읽고 이에 대해 書評하기에 이르렀다. 케어가 이룩한 일련의 작업은 「建艦競争」에서 치열한 軍備競争이란 國際的 葛藤과 독일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英國憎惡感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독일내의 鑛山 株式價의 上昇을 노린 企業家들의 利害關係와 깊이 관련된다고 파악하고 外政보다는 內政의 要因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케어의 업적에서 자극을 받아 베어드는 당시 대규모의 海軍을 육성하려는 海軍支持勢力의 壓力을 억제하려는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sup>17)</sup> 「軍艦建造」에서 제기된 內政優位에 대한 케어의 觀點이란 독일을 위한 거

13) A. L. Skop, *op. cit.*

14) *Ibid.*

15) *Ibid.*, p. 124.

16) G. Iggers, *op. cit.*

17) A. L. Skop, *op. cit.*

대한 함대 건설이란 國家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個人 내지는 集團勢力의 利益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배어드는 뚜렷하게 암시받았던 것이다.

1931~32년에 뉴 리퍼블릭紙에 「海國, 방위인가 세력과시인가」하는 論文을 게재하면서 케어가 제시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利益集團과 海軍力의 밀접한 유착과 또한 그것이 내포하는 위험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sup>18)</sup> 케어에게서 발견한 利害集團과 결부시킨 歷史解釋이란 결코 圖式的인 마르크스主義의 적용이 아니라 철저한 經驗主義에 입각하였다는 점에서 케어는 배어드에 의해서 적극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배어드가 앞서 소개한 論文에서 내린 결론은 케어의 그것과 유사하여 보다 강대한 艦隊를 建造하는 일이란 産業의 膨脹과 産業 부르조아의 擡頭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함대 확장을 위한 중요한 자국은 海軍省 자체내의 宣傳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로 개인적 내지는 직책상의 動機에서 유래된 것이고 경제적 동기는 다만 배후에 숨어 있는 것으로 배어드는 파악하였다.

1차 世界大戰전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美國의 海軍中心主義者들은 사모아나 베네주엘라 危機를 조작함으로써 보다 많은 海軍豫算을 목표로 議會의 承認을 얻기 위한 大衆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였다.<sup>19)</sup>

그러나 독일과 같이 美國에서도 議會가 農業勢力의 支配를 받음으로써 대규모의 예산을 통과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의 建艦運動을 이끈 티르피츠에 비길만한 人物은 루즈벨트(T. Roosevelt)나 마한(A.T. Mahan) 등이었는데 이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強國의 地位를 확보해야 함을 확신하고 있었다. 배어드가 주목한 것은 海軍省과 관련을 가진 私企業과 造船業의 지원을 받는 海軍聯盟(Navy League)이었는데 이 기구는 海軍増大를 위한 反共一愛國的 저술들을 적극적으로 同 援하였다. 케어의 歷史的 洞察에 힘입은 배어드는 전쟁중에 軍部가 모든 政治的 決定權에까지 影 향을 미친 위험과 어 리 석 음이 1차대전에서 독일의 敗亡으로 이끈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海軍強化의 경제적 배경을 검토하였던 것이다.<sup>20)</sup>

1920년대 말에 배어드는 케어의 分析처럼 그토록 過 격 하거나 體 계 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對外政策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國 內의 政 治 的 鬭 爭이 介 入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海軍強化는 國 內의 利 益 集團과 關 계 될 뿐 만 아 니 라 모 든 資 本 主 義는 國 際 的 商 業 的 利 害를 保 護하기 위 해 서 도 必 要하다는 外 政 的 考 慮가 깊이 作 用 하였던 것이다.<sup>21)</sup>

배어드는 美國에 온 케어를 시카고 大學 케플홀에서 만났으나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對話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어드는 적극적으로 케어의 研 究를 뒷 받 침 하 고

18) C. Beard, "The Navy: Defense or Potent?", in: *New Republic* 68 (Oct. 14, 1931), pp. 223~226.

19) *Ibid.*

20) *Ibid.*, p. 223.

21) A. L. Skop, *op. cit.*

## 6 美 國 學

자 코넬 大學의 칼 베커(C. Becker)와 접촉하도록 하였다. 베어드가 추천한 研究주제는 「프랑스 革命기간의 유럽과 아메리카의 關係」였으나 이에 대해 케어는 아무런 관심도 내 보이지 않았다.<sup>22)</sup>

케어는 버나도트 슈미트의 세미나에서 그의 최후의 강연이 된 「최근 독일의 역사서술」을 발표하여 독일 역사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하였다. 이 강연에서 케어는 독일에서 겪었던 學問的 失意와 나찌즘의 擡頭를 겨냥한 신랄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케어는 독일의 보수주의와 결부된 歷史學이 독일이 걸어온 一般史를 형성한다고 단정하고 독일의 歷史家들이 帝國統一 과정에서 「國家를 위한 權力」을 위해 「個人을 위한 自由」를 희생하는 과정을 노정시켰다고 고발하였다.<sup>23)</sup> 프로이센 귀족과 軍部の 結탁으로 실현된 統一과정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독일 歷史家들은 國家統一과 동시에 진행된 産業化 과정, 다시 이로부터 파생하는 社會問題를 파악하는 일을 기피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독일史學에 대한 케어의 신랄한 비판은 美國 歷史學 내지 社會科學에서 經濟가 차지하는 役割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독일과 대조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보였던 까닭에 있는 것 같다.<sup>24)</sup>

케어는 이 강연에서 독일 史學, 특히 마이네케로 대표되는 理念史學이란 정신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市民階級의 딜렘마에서 탈출하고자 시도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궁지에 몰려 있다고 단정하였다. 케어는 마이네케의 理念史學이란 마치 높은 산에 오를 登山家처럼, 매일매일의 먹을 것을 위해 투쟁하고, 한정된 視野 밖은 내다볼 수 없는 大衆이 감히 있는 골짜기를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였다.<sup>25)</sup> 따라서 理念史라고는 하나 世界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理念(思想)——예컨대 美國이나 프랑스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理念이나 독일의 社會民主主義 理念, 러시아의 볼셰비키 理念등——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타부시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우기 大衆과의 교섭을 끊고 象牙塔에 갇힌 歷史學의 실정을 고발하였다.

케어는 독일 史學이 美國 歷史學과는 좋은 對照가 된다고 보면서 베어드의 「美國文明의 擡頭」가 한 版에, 17만 5천부나 인쇄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러한 著述이 독일에서는 쓰여지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도 大學教授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였다.<sup>26)</sup>

독일 史學에 비교하면서 케어는 美國 歷史學이 1880년대에는 주로 랑케史學의 영향에서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나 1세대가 못되어 랑케史學의 脆弱點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랑케의 歷史파악에는 政治에서 經濟가 차지하는 역할을 등한시되었다는 점이 美國 歷史學者들사이에 확인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케어는

22) *Ibid.*, pp.126~127.

23) E. Kehr, *Neuere Deutsche Geschichtschreibung*, pp. 264~265.

24) *Ibid.*, 265.

25) *Ibid.*, 262.

26) *Ibid.*, 263.

그 원인을 兩國 歷史學이 出發되었던 時期의 차이에서 찾았다. 즉 독일 史學은 世紀中葉, 경제가 정치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 즉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출발하였던 것으로 케어는 파악하였다. 그러나 랑케 史學을 받아들인 美國 史學은 곧 1880년대와 90년대의 본격적인 産業化에 직면하여 랑케 史學과 美國 現實과의 괴리를 직감하게 되었다고 단정하였다.<sup>27)</sup> 一次世界大戰이 일어나기 전, 독일 史學이 理念史學에 몰두한 것과는 달리 美國 史學에는 美國 社會의 격동적 변화에 직면하여 新 史學의 기치를 든 베어드의 「憲法에 대한 경제적 해석」과 도드(W.E. Dodd)의 「팽창과 갈등」이라는 歷史의 著述 등이 나타날 수 있었고 歷史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강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케어는 덧붙여 美國 歷史學이 독단적인 마르크스主義가 아니더라도 전체 社會構造가 經濟生活에 제약받는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고 지적한다.

케어를 만났을 때의 베어드는 이미 독일 랑케 史學과 歷史主義의 한계를 깨닫고 이미 그의 史學의 후대 再構成에 직면하고 있었던 때였다.<sup>28)</sup> 케어가 죽은 뒤, 對外政策에 관한 研究에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고 「國內에서의 門戶開放 政策」과 「國家利益의 理念」에서는 명백하게 케어의 內的優位의 관점을 받아들여 海軍의 再軍備強化를 위한 루즈벨트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케어에 있어서 美國은 결코 亡命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의 돌연한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의 歸國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흔히 그를 移民 歷史家의 명단에 올려 놓는다. 美國에서의 베어드와 케어의 만남은 두 사람의 歷史學의 만남을 넘어서 20세기 초엽, 전통 歷史學이 自己轉換하는 과정의 里程碑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美國에 이주해 온 社會學者와 政治學者에 관한 동향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겠으나, 이들이 미국에서 이룩한 업적은 비단 한정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고 歷史學을 포함한 여러방면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法律學을 바탕으로 「비히모스」를 저술하여 나찌즘의 政治權力을 밝힌 노이만(F. Neumaun)과 좌파이론으로 帝國主義의 本質을 밝힌 할가르텐(Hallgarten), 독일 바이마르 共和國에 대해 研究한 로젠베르크(A. Rosenberg)등은 독일과 美國의 社會科學 뿐만 아니라 歷史學에도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 노이만은 1900년 칸토비쯔에서 유대系 독일 兩親사이에 태어나 1次大戰이 끝날 무

27) *Ibid.*, p. 264.

28) L. Sorenson, "Charles Beard and German Historiographical Thought," *Historical Review* 41 (Oct., 1935) p. 74f.

렵, 프랑크푸르트大學에서 法律學을 전공하고 1927년부터는 베를린에서 勞動法 辯護士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바이마르 共和國이 영속되고 독일에서 民主主義 體制가 그대로 지속되었더라면 노이만은 분명히 共和國의 중요한 政治的 地位를 누렸을 것이었다.<sup>29)</sup> 共和國末期에 그는 政治大學에서 강의를 맡는 한편, 社會 民主黨의 法律顧問으로서 또한 프로이센 行政裁判所와 經濟評議會의 一員으로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活動도 나찌스의 執權과 더불어 終止符가 찍혀졌다. 그는 나찌스 政權에 의해서 公民權을 박탈당하고 독일을 탈출하여 亡命길에 올라 도중에 英國에서 그의 法律知識이 無用함을 깨닫고 라스키(Laski) 밑에서 政治學으로 전공을 옮기게 되었다. 런던 大學에서 哲學博士 學位를 받은 뒤, 노이만은 美國이 그에게 ‘人間, 知識人, 또한 政治學者’로서의 三重的 變身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유일한 나라일 것으로 생각하고 1936년 이곳에 오게 되었다.<sup>30)</sup>

이 시기에 노이만은 大恐慌을 수습하기 위해 루즈벨트가 주도한 ‘뉴 디일政策’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감명은 비단, 노이만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을 포함한 亡命 知識人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sup>31)</sup>

노이만은 곧 프랑크푸르트에서 콜럼비아로 옮겨온 「社會調查研究所」에 소속되어 그가 버리고 온 本國, 즉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재적 권력의 본질을 분석하기 위해 광범한 자료를 이용하여 업적을 이룩했는데, 그것이 「비히모스(Behemoth)」<sup>32)</sup>이다. 美國이 2차大戰에 참전한 뒤 그는 美國務省의 독일문제 專問家로서 활약했고 권위있는 나찌즘 分析家로 평판을 받았던 것이다.

大戰이 종결된 뒤 노이만은 몇 차례의 독일방문뒤 분단된 그의 祖國을 영영 포기하고 콜럼비아 大學의 政治學 敎수로 재직하다가 1954년 스위스에서 교통사고로 亡命地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다.

우리는 나찌즘을 분석한 노이만의 研究가 비록 歷史家에 의한 분석은 아니더라도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 분석방법, 또한 그가 뒤에 남긴 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著述의 概要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에 부딪친다.

그는 法律學을 전공한 政治學者이면서 나찌즘 해석의 중요한 열쇠는 經濟的 局面에서 찾는 마르크스主義者의 입장을 확인한다. 그는 서슴치 않고 「國家社會主義의 구조와 그 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法的 行政의 形態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밝

29) H. S. Hughes, "Franz Neumann, Between Marxism and Liberal Democracy," in: *Perspectives* p. 449.

30) *Ibid.*, p. 448.

31) *Ibid.*

32) F. Neumann, *Behemoth,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National Socialism, 1933~1944*(1942) 유대민족의 終末論에서 기원되는 비히모스와 리바이아탄의 두 怪物은 각각 육지와 바다를 지배하여 혼돈을 지배하는 상징으로 숭배받는다는 전설에서 제목을 딴 것이다.



혀 주는 것이란 별로 없다」<sup>33)</sup>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에 입각하여 政治權力을 下部構造의 단순한 反映인 上部構造로 파악하여 權力을 도식적으로 독일의 獨占 支配階層의 前衛로 귀속하는 거치른 파악은 피하고 있다. 그는 독일 社會는 4개의 集團에 의해서 중첩되며, 서로 補強하며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곧 大企業, 政黨, 官僚, 軍部라고 지적한다.

「國家 社會主義는 물론 私企業을 國有化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하지도 않았고 그리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帝國主義의 膨脹에 관한 한, 國家社會主義와 大企業은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國家社會主義는 그 통치의 榮光과 安定을 추구한데 대해서 產業은 可用能力의 완전한 利用과 海外市場의 정복을 추구하였다. 독일 產業界는 국가사회주의에 최대한 협력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民主主義, 市民權, 勞動組合, 公開的 討論을 즐겨 하지 않았다. 國家 社會主義는 또한 產業 指導層의 冒險, 知識, 侵略性을 이용하고 반면에 產業 指導層은 國家 社會主義 政黨의 反民主社會, 反自由主義, 反勞組運動을 이용하였다. 이 政黨은 大衆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技術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다. 官僚制는 언제나 승리를 거둔 勢力과 함께 전진하였고 독일史에 있어서 처음으로 軍部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다」.<sup>34)</sup>

위에 지적한 바로서 나찌즘의 政治體制를 분석한 노이만의 업적은 흔히 마르크스主義的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는 단순한 產業界와 政治權力의 관계를 단순하게 직결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파시즘이 곧 獨占 資本主義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단순한 논리로서 귀결되지는 않았고 보다 복합적인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 관련성을 지닌 것이었다.

「비히모스」에서 노이만이 밝힌 나찌즘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歷史的 分析方法에 입각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의 관심은 다만 그가 美國의 歷史學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에 있다. 그는 大陸的 學問 方法과 美國的 方法을 절충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해 마지 않았다.<sup>35)</sup> 그는 한편에서 독일系 學者들에게는 經驗的 研究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고 말하는 반면, 美國側 學者들에게는 그들의 經驗的 研究의 熱情에나 歷史와 理論에 대한 관심으로서 균형을 이룰 것을 충고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計量的 方法과 行態科學的 方法이 범람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歷史學을 포함한 美國의 社會科學이 당면한 問題란 곧 歷史와 理論의 不足이라는 데 缺陷이 있다고 노이만은 지적하고 있다.

33) *Ibid.*, p. 227.

34) *Ibid.*, pp. 305~361.

35) H. S. Hughes, *op. cit.*, p. 460.

36) "The Social Sciences" in Franz Neumann *et al.*, *The Cultural migration: The European Scholar in America* (Philadelphia, 1953), p. 17~18.

그러나 이러한 美國學問과 大陸學問의 차이를 강조한 노이만의 강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한 젊은 世代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戰略局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노이만 주변에는 독일 問題에 관심을 갖는 미국 태생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비공식 씨클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대부분은 후일 美國의 저명한 大學에서 유럽史 강의를 담당할 責任을 맡게 될 사람들이었다. 전시에 이 씨클에 속한 사람들이란 곧 솔스케(K. Schorske), 크리거(L. Krieger), 포드(F. Ford), 휴즈(S. Hughes) 등이었다. 여기에 첨가해서 콜럼비아大學에서 독일 亡命客의 자제인 가이(P. Gay)나 스텐(F. Stern)을 포함 6사람이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 중 그의 직계 門下生이라 할 가이는 社會 民主主義者인 베른슈타인의 修正主義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歷史學으로 專攻을 옮기게 되었다.<sup>37)</sup> 그의 영향을 받은 어느 누구도 마르크스主義者로 전향하지는 않았으나 歷史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經濟構造와 階級關係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歷史的 現象의 배후에 숨겨 있는 利益集團의 壓力을 의식하지 않고는 政治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노이만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美國大學의 大學院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歷史分析方法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나 노이만이 처음으로 그의 청강생들에게 政治와 社會와의 관계를 밝혔을 때에는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유럽問題의 研究은 「對外政策의 우위」라는 랑케류의 歷史 解釋方法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확신은 베르사이유體制 이후 外交史에 종사하는 美國學者들의 관심의 主流를 이루었던 것이었다. 노이만이 美國大學에서 이룩한 업적이란 에크하르트 케어가 제시한 도전을 계승하는 일이었다.<sup>38)</sup> 노이만은 그의 「비히모스」에서 對外政策의 우위란 지속적인이고 합의된 國家利益의 表現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한 社會의 지배적인 經濟와, 이데올로기적 勢力의 表現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러한 解釋方法이 곧 그의 강의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노이만의 영향을 받은 歷史家들은 知性史보다는 오히려 社會史의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는 「知性的 社會史(Social History of Ideas)」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즉 知性的 社會史 分野에서는 知性的 創造者들이 知性を 창조할 수 있는 歷史的 環境의 완전한 관련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39)</sup>

노이만의 社會的 分析에는 마르크스主義的 立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獨斷的 解釋을 거부한 社會主義的 立論이란 결코 자유-민주주의적 立場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노이만과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歷史家들의 作業에서 명백해진 것이다.

노이만의 사후 그의 영향은 여러 분야로 분산된 형태로 미국 學問에 미치고 그것은 미국

37) H. S. Hughes, *op. cit.*

38) F. Neumann는 Behemoth에서 여러 군데서 E. Kehr의 업적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룩한 탁월한 분석에 입각하여 그의 나찌즘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F. Neumann, *op. cit.*, pp. 203~204, p. 206.

39) H. S. Hughes, *op. cit.*, p. 461.

에서의 독일史 내지는 유럽史 解釋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한편, 나찌즘 등장과 帝國主義의 관계를 분석한 亡命歷史家 할가르텐(G.W.F. Hallgarten)의 업적을 잇을 수 없다.<sup>40)</sup>

뉴욕 할가르텐銀行 株主의 一員이었고 유대系 독일—美國人을 祖父로 둔 할가르텐은 1901년 문헌에 태어나서 토마스 만의 소설 「부덴부르크家の 몰락」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文化와 安樂을 만끽하던 문헌의 上流社會가 붕괴되는 가운데 反猶太主義와 右翼 急進主義가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할가르텐의 帝國主義와 파시즘 분석을 위한 맹아가 자라고 있었던 환경이었다.<sup>41)</sup>

1925년 헤르만 온켄 밑에서 「독일의 폴란드友營團研究」로 학위를 받은 할가르텐은 이미 이때부터 강한 社會經濟的 關心을 歷史研究에서 제시하였고 마르크스와 베버의 方法論에 대해 깊이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당연한 귀결로서 당시의 급진적 歷史研究에 종사한 에크하르트 케어의 中心思想에 접촉하여 그와의 깊은 개인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sup>42)</sup>

1933년 나찌즘의 迫害를 피해 할가르텐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 망명생활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방대한 帝國主義研究의 原稿를 뉴욕에 가서 亡命學者들을 규합하여 新 社會研究學派(New School of Social Research)를 형성할 에밀 레데리(Emil Ledere)에게 보내어 出版되기를 원했으나 당시의 美國의 出版事情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 동안 파리에서 할가르텐은 하인리히 만(Heinrich Mann)의 지도하에 결성된 독일 人民戰線에 소속되어 활약하다가 1935년에 드디어 美國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學問的 生活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였고 그의 「帝國主義」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희망은 양쪽 다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국 그의 「帝國主義」는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1951년 西獨에서 간행되고 1963년 增補版이 다시 간행되었다.

美國에서는 1954년 「의 獨裁者인가?」라는 간결한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이것은 거의 원고에 수록된 脚註를 빼어버리고 一般讀者의 口味에 맞게 편집되어 본격적인 學問的 研究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망명지에는 그의 研究에 活力을 줄 文書館이나 충분한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기본적인 史料를 기초하지 않는 歷史研究는 고작 思想史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母國 독일에서 에워싸여 있던 上流層의 社會意識을 버리고 美國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局外者의 立場에서 나찌즘 現象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3)</sup> 美國에서 할가르텐은 경제

40) J. Radkan, "G. W. F. Hallgarten," in: *Deutsche Historiker V. 1.* (Hrsg. von H. U. Wehler, 1980), pp. 103~118.

41) Georg Hallgarten, "Vorkriegs-Imperialismus", *Die Soziologischen Grundlagen der Aussenpolitik europäischer Grossmächte vor dem ersten Weltkrieg 2 Bde.* (München, 1951)보다 요약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1931년 파리에서이다.

42) J. Radkan, *op. cit.*

43) *Ibid.*

적으로 불운한 나날을 보냈고, 전후에도 美國이나 독일 大學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客員教授로 지내야만 하였다.

한날, 앞서 우리가 살핀 노이만이나 할가르텐을 포함한 政治學者 내지는 歷史家들은 바이마르 共和國이라는 「理性的 共和國」에 소속된 知識階級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知的 共和主義者와 共和主義의 知識人의 두 그룹이 있었는데 후자는 비스마르크 帝國의 비밀을 파헤치고 무의식을 강요하던 歷史的 傳統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學問의 中心舞臺를 차지 한 것이 바로 에크하르트 케어였다.

이들 비판적 知識人들은 나찌즘의 집권과 더불어 그들의 母國을 떠나 亡命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고 美國이 곧 그들 學問研究의 요람이 될 수 있었다.

#### IV

이상 에크하르트 케어의 歷史方法論과 깊은 관련을 가진 政治學者내지는 社會學者들이 美國 社會科學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그러나 이미 독일에서 歷史家로서의 훈련을 맞춘 발렌틴(V. Valentin), 홀본(H. Holborn), 길버트(F. Gilbert), 또한 로젠베르크등의 歷史家들이 계속해서 독일을 떠나 美國으로 이주하였거니와 亡命기간에 歷史學으로 전향하여 歷史家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에릭 아이크(Erich Eick), 프란츠 노이만(Franz Neumann), 골로 만(Golo Mann) 등이 있고 이들보다 더젊은 世代에 속한 조지 모스(George Mosse), 클라우스 엡스타인(Klaus Epstein), 또한 프리츠 스텐(Fritz Stern)등이 후자에 속한다. 이들 대부분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찌즘의 人種政策의 가혹한 시련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고향을 등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아들이 移住地인 美國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원주지인 독일에서 어떤 입장의 歷史學을 추구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政治的 觀點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들을 묶을 수 있는 共通分母란 이들이 한결같이 바이마르 共和國을 지지하는 自由-民主主義路線에 가담하였다는 점과 당시 독일大學을 장악한 老壯歷史學教授들에 비해 政治的 事件과 構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社會史的 要因을 더욱 깊이 고려하였다는 점일 것이며<sup>44)</sup> 보다 구체적으로 하요 홀본, 펠릭스 길버트, 한스 로트펠스등은 당시 독일史學의 巨峰인 마이네케의 門下生으로서 그의 理念史學의 절대적인 영향속에서 그들의 歷史學의 기반을 다진 歷史家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독일의 政治的 保守主義와 결부된 理念史學은 아니더라도 移住地에서 다른 각도의 理念史學을 추구하고 그것이 곧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知性的 社會史」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던 것이다.<sup>45)</sup>

44) G. Iggers, "Deutsche Historiker in der Emigration," in: *Geschi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Hrsg. von B. Flehribach, 1974), p. 99.

45) *Ibid.*, p. 58.

周知하듯이 마이네케는 독일 帝國 創建期에 그들의 史論을 動員하여 統一課業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드로이젠, 지이벨, 트라이치케 등으로부터 역사학의 기초를 닦은 門下生으로서 프로이센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歷史家였다. 또한 1次大戰 이후에는 낡은 보로시즘(Borossism)을 청산하고 나우만(Naumann)의 政治理念이나 베트만-홀베크의 독일 政策에 가담하는등, 中道의 路線에 가담하고 1930년의 나찌즘 執權의 위협성을 감지할 수 있었던 歷史家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이네케의 理念史學은 간단히 말해서 歷史를 움직이는 個人과 個人이 活動하는 國家의 役割을 강조하는 個體原理와 歷史主義에 집착함으로써 지난날의 政治史學을 극복하지 않고 그것에서 교묘한 脫出口를 찾는 데 불과하였다.<sup>46)</sup> 따라서 그의 理念史學은 歷史的 運動이 전개될 수 있는 社會的, 經濟的 關聯을 파악하는데는 무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이네케의 理念史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이들 歷史家들은 유럽大學보다는 개방적인 성격을 띤 美國의 大學에서 교수직을 얻어 그들의 歷史敎育과 歷史研究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한스 로젠베르그는 버클링 소재의 캘리포니아大學에, 디트리히 게르하르트(Dietrich Gerhard)는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워싱턴 大學에, 한스 로트펠스는 시카고 大學에, 펠릭스 길버트는 프린스턴大學의 高等研究院에서 각각 교수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sup>47)</sup>

독일 歷史家들이 이렇게 쉽게 亡命地에서 歷史學 敎授職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美國大學이 갖는 學問的 學文主義, 大陸에 비한 교수직의 開放性, 外國問題에 대한 폭 넓은 관심등은 이들에게 社會的, 學問的 活動을 보장할 수 있는 可能性을 약속해 줄 수 있었다.<sup>48)</sup> 그러나 이러한 여러 條件보다는 우리가 이미 케어와 베어드와의 관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30년대의 美國은 世紀초의 思想風土를 지배하고 있었던 낙관적이고, 實用主義的, 自由主義의 파라다임이 위기에 직면하고, 社會科學과 哲學에서의 유럽大陸의 思考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표시된 상황 아래 놓여 있었다.<sup>49)</sup>

이러한 과정은 한편에서는 經驗的 論理와 分析의 尖銳化에 따른 새로운 科學的 土臺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에 공헌한 비엔나 學派의 공헌은 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美國 社會科學의 統計的 方法은 한계성에 직면하게 되어, 理論을 멀리하는 經驗主義를 수정해야 할 필요에 부닥치게 되었다.<sup>50)</sup> 이때부터 베버(M. Weber), 만하임(K. Mannheim), 딜타이(W. Dilthey) 또한 짐멜(G. Simmel)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적극화되었다.<sup>51)</sup>

이들 亡命知識人들에게 美國은 다른 西유럽 여러 나라, 이를테면 英國이나 스위스와는

46) 줄고, “마이네케의 理念史學” 참조.

47) G. Iggers, *op. cit.*

48) Th. W. Adorno, “Scientific Experiences of an European Scholar in American,” in: *Perspectives*, pp. 338~370.

49) “The Intellectual Migration: Europe and America, 1930~60,” in: *Perspectives*.

50) G. Iggers, *op. cit.*

51) *Ibid*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제 2의 故鄉으로 받아들여 졌고, 그들이 美國文化에 끼친 공헌 또한 至大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亡命 歷史家들이 美國 歷史學界에 끼친 영향을 주목할만하다. 理念史의 내지는 精神史의 研究方法는 그들이 뒤에 남겨둔 독일의 歷史뿐만 아니다. 다른 歷史分野에도 적용되었다.<sup>52)</sup> 그 중 中世研究에 있어서 칸트로비쯔(E. Kantrowicz), 크리슬러(P. O. Kristeller), 뮌젠(T. E. Mommsen) 등은 이때까지 英國 制度史 내지는 憲政史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던 研究에서 해방되어 보다 포괄적 문제에 접근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研究分野에서는 당시 상당히 文化史的, 思想史的, 研究에 몰두하고 있던 研究領域에 대해 한스 바론과 펠릭스 길버트는 이때까지 경시되었던 새로운 文書研究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活路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亡命 歷史家들이 즐겨 다룬 문제는 무엇보다도 美國에서 발전된 知性史와 독일系 學者, 특히 마이네케의 理念史學과의 관계이다. 분명히 독일에서의 理念史學은 19세기말 프랑스나 美國에서도 알려진 歷史의 形態變化의 과정을 반영하여 낡은 政治史에서 탈출을 시도한 歷史學의 중요한 方向轉向을 내포하는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에서 베르(H. Berr)에서 시작되어 心性의 歷史가 國家나 社會에 있어서의 思想의 役割이 주목되고 美國에서는 초기적인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大衆意識에 대한 검토가 知性史의 기원을 마련하고 그 속에는 이미 知識社會學的 關心까지 내포된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 마이네케의 理念史學은 政治史의 路線에서 교묘히 이탈하는 듯 보이나 완강하게 政治史學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이 속에 담겨 있었다.<sup>54)</su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美國으로 亡命한 독일 歷史家들은 마이네케의 門下生이면서도 그 스승과는 다른 視角의 歷史를 파악하고 다른 形態의 理念史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즉 이들이 定着한 美國 歷史學界는 人間과 人間의 社會가 規則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信賴를 상실하였으며 歷史의 繼續性의 意味나 歷史에 대한 파악방법에 회의를 품고 있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풍토에 발맞출 수 있었다.<sup>55)</sup>

페리 밀러(perry miller)나 패리톤(parrinton)에 의해서 개척된 知性史는 이들 移民歷史家들의 관심과도 일치되는 것이었다.

그 원인은 이들 젊은 歷史家들은 그들의 원주지에서 낡은 保守主義를 대변하는 歷史解釋을 강렬하게 비난하였던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뒤로한 바이마르 共和國은 비록 나찌즘에 의해 붕괴되었지만 낡은 歷史觀을 지키기에는 엄청나게 변화된 상황에

52) 독일뿐만이 아니라 칸트로비쯔(E. Kantrowicz)의 中世史, 크리슬러(P. O. Kristeller)와 뮌젠(Th. E. Mommsen)의 英國史研究에도 적용되었다. G. Iggers, ebenda, p. 106.

53) L. Krieger, "The Anatomy of Intellectual History," *J.H.I* 34 (1973), p. 498f.

54) E. Schulin, "Meineckes Stellung in der Deutschen Geschichtswissenschaft," *H.Z.*, 230, (1980), p. 3f.

55) 참고, "마이네케의 理念史學," 주 81.

직면하고 있었다. 1차대전의 종결과 혁명위의 知識人들은 어느 하나에도 信賴를 둘 價値體系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革命에 의해서 희생된 帝國을 보상할 새로운 共和國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 장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풍토를 경험하였던 것이다.<sup>56)</sup> 이러한 風土를 이들 젊은 歷史家들의 스승인 마이네케조차도 시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네케는 「독일이 살아 남을 길이란 民主的이 되는 일이고 낡은 保守主義의 理念의 기반을 물리치고 復古를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항하는 길이고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決定을 통해서 進歩에 스스로 내맡기는 일이다」<sup>57)</sup>라고 갈파하였다.

그러나 마이네케의 歷史學은 그가 갈파한 路線으로 추구되지 않았고 나찌즘으로의 길이 저지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젊은 歷史家들은 다른 歷史感覺과 歷史研究方法를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 理性에 안주한 知識人들은 모든 階層의 和解를 國家權力으로서 실현하는 일의 한계를 직감하고 있었다. 바이마르共和國에서 젊은 歷史家들이 당면한 딜렘마에는 곧 새로운 突破口로서 亡命 내지는 이주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결말이 내포되었다.<sup>58)</sup>

이들 歷史家들은 전쟁중에는 對獨攻略을 위해 美國 歷史家들과 함께 봉사하였고 전후에는 독일史 내지는 유럽史 研究의 광범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예일大學에서 활약하던 홀본(H. Holborn) 밑에서 1941년부터 1968년까지 55명의 歷史家가 學位課程을 마쳤고 政治學의 노이만(F. Neumann)에 영향을 받은 많은 移民 내지는 亡命學者들, 이를테면, 피터 가이, 프리즈 스텐등이 歷史學을 전공하여 美國大學에 기여하였다.<sup>59)</sup>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콜럼비아 大學에서는 노이만(Neumann)이 주재하는 교수 콜로키움이 형성되어 歷史學의 方法論에 대한 광범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노이만 밑에서 學位를 취득한 가이에 의해서 「知性的 社會史」(Social History of Ideas)가 주창되어 意識을 政治的 事件의 중심에 설정하고 이것을 다시 社會 構造的 關聯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的 思想史의 研究方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自由民主主義의 立場에서 추구되어 주요 業績들을 남기게 되었다.<sup>59)</sup> 즉, 레오나드 크리거(L. Krieger)의 「독일적 자유의 理念」, 프리즈 스텐의 「정치적 위협으로서의 文化悲觀主義」, 조지 모스(George Mosse)의 「독일적 이데올로기의 危機」<sup>60)</sup> 오토플란츠(Otto Pflanze)의 「비스마르크 研究」<sup>61)</sup>등이 그것들이다.

思想史 研究 외에도 政治와 經濟의 發展關係를 이론적 모델과 실증적 자료로서 밝혀 보려

56) Peter Gay, "Weimar Culture," in: *Perspectives.*, pp. 22~23.

57) *Ibid.*, pp. 23~24.

58) G. Iggers, *op. cit.*, p. 108.

59) *Ibid.*, p. 108.

60) G. L. Mosse, *The Crisis of German Ideology: Intellectual Origins of the Third Reich*(N.Y., 1964.)

61) O. Pflanze,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The Period of Unification* (1963).

는 研究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1938년 비인에서 이주하여 온 經濟史家 거센크론의 研究는 經濟的 後進성과 뒤늦은 產業化에 수반하는 政治的, 社會的 問題에 접근하려는 시도로써 바로 이러한 方向에 입각하여 있다고 하겠다. 또한 마이네케의 門下生이었던 로젠베르크(H. Rosenberg)는 1933년까지 「新時代」의 편집을 담당하면서 이 시대에 이미 經濟의 週期和 變動과 危機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美國에 이주한 시기인 30년대와 40년대에는 1857~59년의 經濟위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1967년에는 「大恐慌과 비스마르크時代」<sup>62)</sup>라는 저서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 저술이 시사하는 바는 經濟와 變動과 政治的 發展간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서 뒤에 발전된 〈近代化 理論과 歷史〉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로젠베르크는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大學에 재직하면서 비스마르크 時代 단이 아니라 19세기초 독일의 民主的 發展을 방해한 官僚的 絕對主義에 관한 탁월한 견해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美國 歷史學에서의 독일史 研究에 큰 자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그가 自由 베를린 大學 초청 교수로 초대되어 이때까지 프로이센 中心의 독일史像을 수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

大戰의 종결과 나찌즘의 패망후 이들 亡命내지는 移民 歷史家들이 독일에 돌아온 경우는 일률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이 東西獨으로 분단되어 共產 陣營과 民主陣營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독일 共產黨 路線에 가담하였던 歷史家들, 이를테면 英國으로 이주한 쿠친스키(J. Kuczynski), 미국에 있던 오베르만(K. Obermann), 소련에 있던 레오 슈테른(Leo Stern) 또한 集團收容所에 수용되었던 마르코프(W. Markov)등은 東獨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西獨의 경우에는 西獨 學界의 民主化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환한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 Adorno), 프레스너(H. Plessner)와 같은 哲學者, 社會學者들의 경우와는 달리 歷史家들의 歸國은 실현되지 않았다. 로트펠스(H. Rothfels)나 골로 만(Golo Mann)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移民 歷史家들은 한 두 學期의 客員教授로 독일을 다녀 간데 불과하였다. 하요 홀본이나 엡스탄(F. Epstein)등이 그러하였고 게오르그 할가르텐(G. Hallgarten)이 1949년 뮌헨에 客員教授로 초청되었으며 이미 언급한 로젠베르크(H. Rosenberg)은 1949/50년에 自由 베를린 大學에 초청되어 브라헤르(K.D. Bracher)나 리터(Gerhard A. Ritter)등의 門下生을 배출하였고 이들 門下生들은 西獨 歷史學의 主役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美國 세인트 루이스 大學에 在職하던 디터 게르하르트(Dieter Gerhard)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쾰른의 美國學 研究所에 봉사하고 1967년까지는 괴팅겐 소재 막스 플랑크研究所에서 오토 힌체의 방법론을 토대로 한 比較史 研究를 크게 자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亡命地 내지는 移民地에서 형성되었던 독일 歷史像의 再構成이 本據地 독일에

62) H. Rosenberg, *Depression und Bismarckzeit* (1967).



영향을 주어 본격적인 歷史像의 修正이 진행된 것은 60년대의 일이었다. 브라허(Bracher)의 나찌즘 研究와 魏쳐 논쟁을 계기로 독일史에 대한 再解釋이 진행되었고 드디어는 벨러를 중심으로한 社會史 研究의 흐름과 직결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V

이상에서 우리는 1933년을 계기로 유럽, 더 정확하게는 독일을 떠나 美國으로 망명 내지는 이주한 歷史家들의 경우를 살펴 보았다.

이주과정에서 이들 歷史家들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였는가 하는데만 관점이 모여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美國 歷史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1930년대의 美國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恐慌의 결과 급격한 社會變動에 직면하여 美國 특유의 낙관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美國 社會의 變動과 葛藤을 분석하기 위한 광범위한 社會科學과 分析은 大陸의 社會哲學 내지는 社會科學의 分析方法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핀 歷史學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케어의 영향을 받은 베어트나 노이만의 영향을 받는 知性的 社會史는 大陸的 思考없이 전개될 수 없는 歷史學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망명 내지는 이민 知識人 내지는 歷史家들은 그들이 떠나온 독일에서 겪은 社會的 文化的 發酵過程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一次大戰 직후부터 이상주의를 신봉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知識의 가능성을 신뢰하였던 낙관주의가 무너지고 價値와 規範의 世界가 상대적이고 時代의 制約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었으며 일체 기성질서에 대한 회의를 社會科學 내지는 歷史學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反省이 바이마르 共和國의 思想的 風土를 충만하고 있었다.

20세기 초엽의 思想界 내지는 知性界는 實證主義속에 안주한 西歐 思想이나 理想主義에 파묻힌 독일 思想이 함께 전면적인 붕괴를 맞고 전환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다. 移民 知識人 내지는 歷史家들이 美國에서의 새로운 학문적 出發은 바로 實證主義와 理想主義의 世界가 붕괴된 폐허 위에 새로운 장래를 전망하는 지성과 사상의 형성을 위한 자극과 직결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